

동심에 빠진 어른들...



판 커지는 '키덜트 산업'

'키덜트족'을 넘어 '오타쿠족'을 노린 애니메이션 피규어 전문 판매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그동안 남들에게 감춰야 했던 개인의 취미가 어느덧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오타쿠들이 어느덧 소비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광주지역 피규어 판매업체에 따르면 대부분 수도권 중심에서 인기를 끌던 키덜트 관련 오프라인 매장이 광주에서도 최근 2년 사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키덜트'(kidult)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난 2011년 동구 장동에 문을 열어 광주에서는 '원조'로 꼽히는 '퉁가게'에 이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련 매장이 생겨나면서 총 7개 프랜차이즈 피규어 전문점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키덜트 제품인 건담 프라모델 전문매장으로는 지난 2015년 문을 연 동구 NC웨이브 총장로점 8층 '건담베이스'와 남구 송하동 '건담샵'이 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담 프라모델 외에도

어린시절 만화로 추억 소환 애니메이션 피규어점 인기 지난해 시장 1조...매년 20%↑ 키덜트족 '큰 손' 자리잡아 광주 2년새 7곳 성업중

'오타쿠'라는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했던 애니메이션 피규어 전문 오프라인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당시 광주 유일 피규어 전문점으로 꼽혔던 동구 계림동 '미니토이'를 시작으로 동구 수기동 '애니페인즈', 광산구 월계동 '뽀기' 전문점 '기차샵' 등이 연달아

문을 열었다. 또 불과 한 달 전에는 광산구 장덕동 대형 피규어 전문점인 '키바스타어'까지 오픈하면서 '오타쿠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

키바스타어 관계자는 "원피스와 건담, 드래곤볼 등 보편적이었던 피규어 제품 외에도 매니아층이 선호하는 '미소녀' 관련 제품들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고가의 피규어 제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의 키덜트 제품 관련 시장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콘텐츠 산업전망 보고서'를 살펴봐도 한국의 키덜트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대로 매년 20%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춰왔던 개인의 취미생활을 당당히 공

개하면서 덩달아 관련 제품들의 판매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비트렌드가 '인생을 한 번뿐'이라는 율로(YOLO) 분위기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증가도 키덜트 문화 확산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비 자재가 본인 한 명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서다.

최지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랜 경기침체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투자보다 당장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캐릭터와 제품이 꾸준히 개발된다면 키덜트 관련 오프라인 매장은 한동안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4.22 (+14.51)	금리 (국고채 3년) 1.80% (0.00)
↑ 코스닥 629.37 (+1.03)	↓ 환율 (USD) 1139.70원 (-3.80)

커피와 탄산수 '이색조화'

보해, 국내 첫 커피 탄산수 '부라더#소다 소다리카노' 출시

보해양조제(대표이사 임지선)가 국내 최초로 커피 탄산수 '부라더#소다 소다리카노'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라더#소다 소다리카노는 국내 탄산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보해양조의 제조 노하우와 창의적인 발상을 담은 제품이다. 산뜻한 산미가 있는 아메리카노 맛에 탄산을 첨가해 커피의 풍미와 특유의 청량감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룬 게 특징이다.

보해는 지난해 8월, 부라더#소다 요망바용 시리즈 출시 이후 새로운 맛 개발에 돌입해 약 1년여 간의 연구와 소비자 테스트를 거듭했다. 최종 소비자 설문 결과, 풍미, 참신성, 부라더#소다만의 브랜드 정체성 표현 등에서 소다리카노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시판을 결정하게 됐다.

제품 외관은 부라더#소다 리뉴얼 이미지를 바탕으로 커피가 연상되는 갈색을 입혔다. 제품명은 부라더#소다와 아메리



카노를 결합해 소다리카노로 지었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 부라더#소다와 동일한 3도이며, 용량은 355ml 캔으로 선보인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에서 15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유통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올 여름, 부라더#소다 소다리카노와 함께 더위를 날리고, 이색 탄산수가 선사하는 특별한 맛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금융권 대출 상반기 39조원 증가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섰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 6923억원이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사 등이 들어간다. 이 통계에 대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 39조1499억원(5.4%) 늘었다. 증가 규모가 작년 상반기(34조8909억원)보다 4조2590억원 많고 반기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52조8672억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 수준이다.

상반기 여신 증가액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잔액이 60조3694억원으로 11조587억원(22.4%) 늘었고 저축은행은 47조2628억원으로 3조7982억원(8.7%)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은 4조230억원(7.7%) 불었고 상호금융은 13조2609억원(5.9%), 새마을금고는 7조1578억원(7.9%) 각각 늘었다.

연합뉴스



오비맥주, 광주 인재육성에 1500만원

'빛고을 장학금' 전달...15년간 4억3천만원 기부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대표 브랜드 '카스'와 '프리미어 OB'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시장 윤정현)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해 윤정현 광주시청에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빛고을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가 광주시청과 함께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이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기탁된 장학금은 광주시청 산하 재단법인 빛고을 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지역인재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오비맥주는 현재까지 총 4억3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못받은 납품대금 신고하세요"

공정위, 내달 29일까지 전국 10곳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광주·전라권을 포함해 총 10곳의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9억원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위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

개), 대구·경북권(1개)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 신고 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상담 등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62-975-684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계란값 추석까지 고공행진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폭등한 계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7592원으로, 1년 전 가격인 5382원보다 2210원이나 비싸다. 1년 사이 가격이 41.1%나 오른 것이다.

AI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1월 계란값이 9000원대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많

이 내린 셈이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비싸다.

계란 생산기반의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산란계 수는 AI 발생 직전 6900만 마리였는데, 지금은 약 6600만~6700만 마리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산란율이 떨어지는 노계와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비율이 높아 계란 생산량 자체는 AI 이전과 비교할 때 하루 평균 1천만개 이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기홍기자 pboxe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성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아트패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